# 월정사 권역 · 삼국유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본격화

**월정사 등 오대산 복합유산 추진**
**佛 · 儒 · 道 품은 정신사 보고**
**인문 · 생태 통섭유산 부각 기대**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표**
**군위군, 국학진흥원 등 사업 진행**
**올해 초부터 기관들 협약 · 세미나**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오대산 월정사 권역과 일연 스님의 저서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복합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각각 추진된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강원도와 손잡고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은 월정사와 상원사,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하는 문수성지이자 선원과 명상마을도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복합 정신문화가 깃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대산의 청정한 자연은 생태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이 평가된다.

월정사는 이같이 오대산의 불교와 인문학, 명상 힐링, 자연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평창군 등 관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TF팀을 올해 안으로 구성해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 등재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월정사가 중심으로 자리한 오대산은 국보 제48호 팔각 구층 석탑과 석조보살좌상, 국보 제221호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 좌상, 국보 제292호 상원사 중창권선문 등 57점의 국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명실공히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오대산과 월정사는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한 오대산 사고(史庫) 등 유교 문화와 도교, 샤머니즘을 품고 있어 한국 정신사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인문적 내용과 생태적 자연환경이 아우러져야 한다. 해외에는 중국 오대산 등 사례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많지 않다. 평창 오대산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이 훼손됐지만, 긴 역사 속에 녹아 있는 인문적 내용과 자연 환경의 가치가 함께 결합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행정적으로 학술적으로 오대산의 인문생태적 가치들을 잘 정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일 유네스코에 등재돼 오대산의 위상이 한층 더 격상된다면,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활성화 산업에도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복합 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불교 유산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오대산 월정사 전경. 군위군을 중심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삼국유사〉(국보 제306-3호 권1~2)

이어 정념 스님은 “지난 4월 월정사는 오대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자들에게 등재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바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월정사는 유네스코 복합 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강원도와 평창군도 최근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 · 고구려 · 백제 3국의 유사(遺事)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군위군과 경상북도는 8월 30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삼국유사〉 중요 판본에 대한 보존 및 활용 가치를 확인하고 유사가 가진 기록유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동국대박물관장)을 비롯해 전문 학자 10명의 주제 발표와 패널 20명이 참가한 토론이 이뤄졌다.

그간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학계 전문가,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도 등과 총 3회에 걸친 워크숍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삼국유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1월 9일에는 〈삼국유사〉 판본을 보유한 범어사 성보박물관, 서울대 한국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삼국유사〉의 기록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아시아 · 태평양지역 목록 등재 추진 시 저본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돌 맞은 불교평론 ‘탈종교화’ 논한다

한국불교 지성을 대표해온 〈불교평론〉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탈종교화’ 현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평론〉은 8월 3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창간 20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만해축전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탈종교화와 불교를 고찰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논문으로는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의 ‘세계종교에서 세속화와 탈세속화의 동시적 전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탈종교적 신행행태와 미래’ △구미 화엄탑사 주지 명법 스님의 ‘탈세속화 시대, 붓다를 사유하기’ △이혜숙 금강대 초빙교수 ‘시민사회 공론장 확립을 위한 불교의 역할’ △이상헌 서강대 교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와 불교’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의 ‘탈종교 시대, 그리스도교의 탈-향 운동’ △양형진 고려대 교수의 ‘현대과학기술문명과 불교의 역할’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 부모 · 자녀 세대갈등 해소 나선 화쟁위

**야단법석 ‘대화가 필요해-화쟁, 가족을 만나다’ 서울서 열려**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가족 내 세대갈등 해소를 위해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는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유진)와 야단법석 ‘대화가 필요해-화쟁, 가족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야단법석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대변하는 50대와 20대 참가자들이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다른 세대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스무 살 아들이 상냥하지 않아 심적으로 힘들다고 밝힌 민순의 씨는 “모든 엄마는 아들에 대한 로망이 있다. 같이 쇼핑도 하고 살가운 말도 듣고 싶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아들은 매일 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무슨 말만 꺼내면 꼰대 같은 소리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민 씨는 이어 “지난 주말에 아들을 어르고 달래 호프에 가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아들은 자신이 상냥하지 않게 대한 것이 의도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면서 “대학교에 진학한 뒤 엄마의 조언이 다 쓸모없게 느껴졌다고 했다. 아들이 사과하면서 상냥해지긴 했는데 한편으론 참 슬펐다”고 말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다른 이의 고민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야단법석 참가자들.

아들 입장을 공감하는 20대 심장현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아들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제 자신도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저 역시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표현이 조금 서툴러 생긴 고민 같다. 꾸준히 대화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녀세대에서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을 이해 못하는 아버지로 고민하는 딸이 나섰다. 이정빈 씨는 “집안 분위기는 좋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 아버지는 젊은이들이 학교과제나 공지를 SNS로 전달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싫어하셔서 눈치가 보인다”고 고민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어린 아들에게 강압적인 교육으로 상처를 줘 미안하다는 부모의 사연을 비롯해 장손에게 강요하는 남성성이 불만인 자녀의 사연까지, 참가자들은 서로의 다양한 고민을 공유했다.

윤호섭 기자

## “아베정권 일본군성노예제 사죄하라”

**조계종 사노위, 제1401차 일본군성노예제 수요시위 주관**

“아베정권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성노예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향한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길거리에 울려 퍼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8월 2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40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했다. 이날 사노위에서는 위원장 혜찬 스님과 위원 스님 등 10여 명이 수요시위에 참석,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자리서 사노위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맺은 엉터리 합의인 2015한일합의만 되뇌고 피해자 할머님들의 생생한 증언이 아베정권은 들리지 않는가”라며 “역사적 진실을 순간 덮어버린다고, 저지른 과거를 지워버린다고 일본의 죄악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혜찬 스님이 8월 21일 제140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어 “일본정부는 참회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성노예제 문제에 왜곡과 거짓을 멈추고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라”고 꼬집은 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피해자중심의 외교로 맞설 것을 요청했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참회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고 했다. 부끄러움과 참회를 모르는 아베정권이야말로 짐승이 아닌가 싶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호섭 기자


